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9.(목) 11:00 < 12.30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29.(목)
담당 부서	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 오충종 (044-203-4290)
		담당자	팀 장 이재연 (044-203-4291)

민관합동 『철강수급조사단』 최종결과 발표

-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업무지속계획(BCP) 수립 및 사업장 수준 이상의 전사적 대응 필요 -

- 민간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포스코의 신속한 설비 복구 및 협력 업체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에 기여 평가 -

- BCP 수립 의무화 관계 법령 개정 등 검토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창양 장관)는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이후 구성한 민관합동 **『철강수급조사단』**으로부터 **조사 최종결과를 보고받은 바,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다.**

민관합동『철강수급 조사단』개요

◇ **(배경)** 정부 주도「포항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」와 병행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객관적·전문적 상황 판단 및 대책 방향 제시

◇ **(구성)** (단장)연세대 민동준 교수, (간사)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, (조사위원)철강설비 전문가(김동철, 설진삼), 재해재난 전문가(김태형, 김계조), 수급 전망 전문가(산업연 정은미 본부장) (정부)산업부·고용부 실무자 3인

◇ **(활동기간)** 9월 중순~12월 말

□ 조사단은 **12.27(화) 마지막 현장 조사**를 통해, 12.16일 재가동을 시작한 **제2열연공장**을 비롯하여 수해 설비의 가동현황을 확인하고 수해 복구 및 수급 영향을 최종 판단하였다.

○ 수해 피해가 컸던 제2열연공장은 16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고, 27일 현장조사 당시 수해 이전 생산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

확인하였으며, 전기강판, 스테인레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도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.

○ 철강수급도 철강사 및 수요사의 기존 재고 활용과 타 사업장 및 기업의 생산확대 등으로 큰 차질은 없었으며, '23년 1월에 모든 설비의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 만큼, 향후에도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.

□ 조사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① 태풍, 지진, 화재 등 최고수준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**업무지속계획(BCP) 수립 및 전사적 재난대응체계** 수립, ② 배수체계 등 수해 대비 설비 개선, ③ 비상발전기 등 정전에 대비, ④ 복구 후 부작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**설비투자 및 점검**을 권고하였다.

○ 포스코는 조사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BCP 수립 등 재난관리체계 보완, 차수벽 설치 및 배수체계 개선, 비상발전기 설치 등 조치계획을 밝혔으며,

○ 한편,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의 BCP 수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조사단 권고사항에 대해, 산업부는 해당 내용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관계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철강수급조사단은 포항제철소의 **수해 설비복구가 대부분 마무리*** 되었고, 2열연공장 재가동으로 수해 이전과 같은 **全 제품 생산체계가 회복**되어 철강수급이 사실상 정상화됨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.

* ① 재가동 완료**(15개)** : 2·3전기강판, 1·2냉연, 1·2열연, 2·3후판, 1·2·3·4선재, 강편, STS2냉연(12.24), 1전기강판(12.30)
② **'23.1월 재가동(2개)** : 도금, STS1냉연

□ 산업부는 그간 약 4개월간 진행된 조사단 활동에 대해 "포스코의 재해 재난 대비 시스템과 설비 복구 및 수급 영향에 대해 재해·설비·수급 분야의 **민간전문가의 시각을 반영**함으로써 포스코의 **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에 기여**하였다"고 평가하였다.

붙임 **철강수급 조사단 개요**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(**배경**) 정부 주도「포항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」와 병행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·전문적 상황 판단 및 방향 제시 필요성 제기

○ (**역할**) 철강재 수급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관련 조사 후 개선안 제시

① **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예측**을 통해 철강 및 전방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반영

* 철강재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확인, 생산·재고·출하 등 현황 파악으로 수급상황 확인 등도 진행

② **재난 대비 시스템 점검** 및 **피해원인·상황 파악**을 통해 설비노후화 상황에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**재난 대비 시스템 개선방향** 제시

□ 조사단 구성 (총 10명)

구분		이름	소속기관 및 직위
단장		민동준	연세대학교 교수
간사		김영주	금속재료연구조합 이사
민간전문가	기계설비	김동철	前 포스코 압연설비 투자그룹장
		설진삼	前 현대제철 엔지니어
	재해재난	김태형	아람코퍼레이션 대표이사
		김계조	前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
	수급	정은미	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
정부	산업부	철강세라믹과 지역산업과	
	노동부	안전보건감독기획과	